2022 창원조각비엔날레
Changwon Sculpture Biennale 2022

plus CHANGWON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2021.11.05-11.21

창원성산아트홀 제4~6전시실

개막식. 2021.11.05(금) 오후 3시
창원성산아트홀 전시관 중앙홀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프롤로그展

창원문화재단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목차 Contents

03 _ 인사글

허성무 _ 창원시장

임웅균 _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영호 _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장

조관용 _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07 _ 전시서문

이태훈 _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수석큐레이터

09 _ Section1 _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展

강원택

김범수

김정은

뮌

이기일

이승연

이 완

이용백

임형준

정혜경

한진수

35 _ Section2 _ 오픈스튜디오_영상과 메타버스로 만나는 창원의 미술

김옥숙

김희곤

박배덕

박상복

이태호

정순옥

51 _ Section3 _ 사립미술관(레지던스)과 갤러리

금강미술관

대산미술관

마산현대미술관

삼진미술관

갤러리 리좀

맛산갤러리

상상갤러리

연아트 오브 갤러리

창동갤러리

인사글

허성무 _ 창원시장

2010년 문신국제조각심포지엄에서 출발하여 2012년부터 시작된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창원의 조형미를 알리는 통로이자 유수의 국내외 작가들과 소통하면서 조각의 대중화와 세계화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은 창원특례시가 출범하는 해로 여느 해보다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조각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창원지역 문화를 담아내는 축제로 만들 예정입니다. 작가의 작업실을 공개하는 오픈스튜디오 등 창원의 미술 문화를 온몸으로 체감하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2창원조각비엔날레를 미리 보는 전시로, 창원의 문화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조각 작품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활용한 작품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작업하고 계신 작가들의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과 함께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통해 내년 본전시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전시 기간 많은 시민께서 우수 작가들의 빼어난 작품을 감상하시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관용 총감독을 비롯한 예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인사글

임웅균 _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성산아트홀 낙엽거리가 오색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을 맞아 창원문화재단에서는 성산아트홀 전시관에서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프롤로그展〉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개인의 소통을 통한 인식의 확장을 표현하는 의미 있는 전시공간이 펼쳐집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은 더욱 활발해졌으나 대면을 통한 소통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 재단은 이번 전시를 통해 조심스럽게 예술작품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서로 만나 창원 조형예술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나아가 창원조각비엔날레가 베니스비엔날레와 같은 세계적인 미술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조각예술의 도시 창원을 국내외에 각인시켜나갈 이번 전시회에 귀한 발걸음 하셔서 울긋불긋한 단풍빛깔과 조각예술의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곱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인사글

김영호 _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장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프롤로그展 개최를 축하합니다.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전은 격년제로 열리는 비엔날레의 성공을 위한 붐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본 전시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주제에 대한 대중과 전문집단의 견해를 사전에 묻고 공유하는 실효성을 지닌 행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사의 연속성을 통해 비엔날레가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2창원조각비엔날레에 주어진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16개의 비엔날레가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엔날레에 주어진 소명과 사회적 기능을 다시 세우기 위한 특장의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창원조각비엔날레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번 창원조각비엔날레가 내세운 주제는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소통의 개념과 그 메커니즘에 주목하려는 의도가 주제에 비추어집니다. 나아가 현대 양자물리학에 기반한 입자와 파동의 메커니즘은 문명사적 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계관을 새롭게 성찰하는데 기여할 주제로 보입니다.

채널을 통한 소통의 순간과, 그 소통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번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문화적 실험실로서의 기능을 다각적으로 실천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원시민들과 비엔날레를 아끼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합장하고 기대하며 소중한 걸음을 청합니다.

2021. 11.

인사글

조관용 _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보는 것에서 체험의 장(場, field)으로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프롤로그전은 2022년 창원조각비엔날레의 프레 행사 중 하나입니다. 프롤로그 전은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의 개념과 의미를 미리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채널'의 용어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가상의 장치로서 물리적인 용어를 일컫지만 양자물리학의 이론을 빌려와 해석하자면 우리 자신을 대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 우리는 육체를 지닌 존재, 즉 덩어리를 지닌 입자이면서 파동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진동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주파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입자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입자의 상태에서 파동과 같은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전은 육체를 지니며 입자라고 느끼는 개인이 전체의 일부와 같은 파동과도 같은 존재일 수 있음을 잠시나마 일별해 보기 위해 떠나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입자가 아닌 파동과도 같은 존재일 수 있음을 인지하는 순간, 입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일상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전은 '관심'과 '교류' 그리고 '체험'이라는 인식의 창으로써 "나, 너, 우리 그리고 문화와 생명"의 장(場, field)과 마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의 의미는 개인(주체)/대상, 창원의 시민과 예술인들/2022년의 국내외의 모든 작가들과 국내외의 시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전시는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의 의미를 창원의 예술인들이 오픈스튜디오와 갤러리, 미술관을 통해 창원의 미술문화를 펼치며, 국내외의 조각인들이 성산아트홀, 3·15 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 그리고 야외 전시장에서 사회와 산업, 그리고 생태계로 확장되어 가는 생명의 장(場, field)을 펼칠 것입니다.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프롤로그전은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잠깐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 11.

전시서문

이태훈 _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수석큐레이터

2022년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프롤로그 전시는 11명(팀)의 국내 작가, 창원지역 작가의 오픈 스튜디오 영상 그리고 지역 미술관과 갤러리의 참여 작가를 통해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전의 의미와 목적을 미리 살펴보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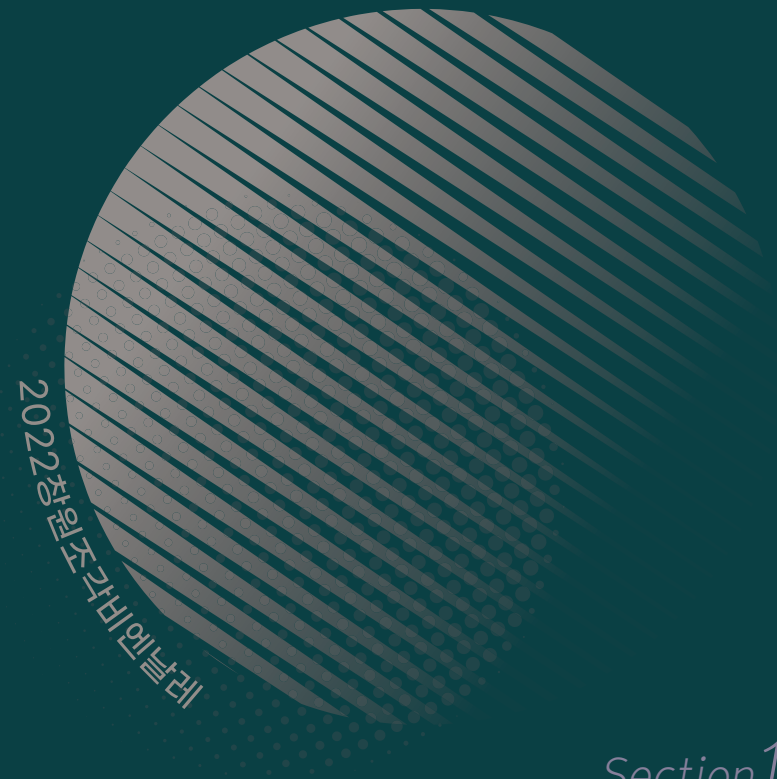
전시의 큰 제목인 채널이 의미하는 것은 개인과 전체, 인간과 자연, 주체와 대상처럼 서로 마주 보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의 지표로, 너와 나의 이분법적 인식에서 우리, 그리고 모든 생명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너와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세계로 그리고 우리를 자양시키는 생명의 모든 것들로.

부제인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위의 내용을 양자물리학에 비유한 것으로 때로는 파동으로 때로는 입자로 파악되었던 빛이 조건에 따라 파동 또는 입자로 나타나는 이중성을 예술의 실천적 행위로 풀어내고자 하고 있다. 전혀 다른 성질인 파동과 입자를 품은 빛을 매개로 두 가지 성질이 하나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설명한 것이다.

빛은 관찰의 유무에 따라 없을 때는 파동으로 있을 때는 입자로 나타난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오묘한 현상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뒤흔들며,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었다. 확정된 상태가 아닌 조건에 의해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능성은 정신과 물질, 인간과 자연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순환하며 공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마치 예술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 전시장에서 관람객을 맞이함으로써 완성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현대예술에서 관람객의 지위는 과거의 작품의 반대편에 서 있는 수동적 관람자가 아니다. 때로는 작품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자 또는 참여자가 되어 작품의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너와 내가 우리가 되고 자연을 더불어 사는 조화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문화와 정신이 양자물리학으로 설명된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전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인식적 확장과 생태계의 공동체적인 순환의 망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Section1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展

강원택 KANG, WON TAEK
김범수 KIM, BEOM SOO
김정은 KIM, JUNG EUN
뮌 MIOON
이기일 LEE, KI IL
이승연 LEE, SEUNG YOUN
이 완 LEE, WAN
이용백 LEE, YONG BAEK
임형준 LIM, HYOUNG JUN
정혜경 JUNG, HYE KYUNG
한진수 HAN, JIN SOO

2022년 창원조각비엔날레의 프롤로그 전시인 〈채널 :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은 내년에 개최되는 본 전시에 앞서 전시의 취지를 알리는 행사이다. 이를 위해 전시의 주제와 의미를 입체적인 조형을 통해 잘 구현할 수 있는 11명(팀)의 작가들을 선별하였고, 작품은 입체 및 설치, 영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작품은 4와 5전시실에서 전시되며 선별된 국내 11명(팀)의 작가들은 강원택, 김범수, 김정은, 뮌(Mioon), 이기일, 이승연, 이완, 이용백, 임형준, 정혜경, 한진수이며 전시되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강원택, 〈Since stone age, 코르크 마개가 있는 모자, 2021 nostalgia〉
자기만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모자를 모티브로 작업하는 작가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림을 재해석하여 각박한 현대인들의 정신을 치즈 형태의 얇아진 것으로 은유하였고 코르크 마개는 인간 존재의 에너지 통로이며 삶을 호흡할 수 있는 생명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김범수, 〈Migraine〉
편두통이란 제목의 설치작품으로 오브제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시지각을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눈'의 경험이 아닌, 외부 대상이 주체 내부로 침범해 들어오는 '응시'(gaze)의 경험으로 표현하였다. 그리하여 시지각을 감각이 아닌 '충동'으로, 대상이 가진 의미의 소멸로, 일종의 '시각적 트라우마'의 경험으로 나타낸다.

김정은, 〈겹쳐진 레이어〉
지도를 지표로 활용하여, 길, 장소, 공간에 대해 다층적으로 시각화하는 작가는 자신이 살고있는 동네와 주변 길들을 단순하게 그리거나, 길의 흔적을 몸 움직임 궤적으로 그려서 기록했다. 트레이싱을 유리판에 겹쳐 빛의 반사와 중첩된 레이어로 제작된 작품은 기억이 겹쳐지듯 포개져 시간과 길의 흔적들을 만들어 낸다.

뮌(Mioon), 〈아트솔라리스(Artsolaris)〉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 중에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시스템(界)의 윤곽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많은 크기의 영역(界)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응집하고 분화한다. 아트솔라리스는 미술계 공공(公共)의 영역에 대한 “진행되는 관찰”이다.

이기일, 〈비틀즈 마니아〉
이 작업은 비틀즈(Beatles)의 위대했던 음악과 남한의 사회적 상황이 교묘하게 만나는 지점을 드러낸 것으로 1960년대 인터넷도 저작권법도 없었던 시절 어떻게 외국 음악을 들었을까? 하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다. 오브제들, 비틀즈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에서 재생산된 이미지들의 감춰진 속살을 드러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승연, 〈귀신고래계시화〉
작가에게 암각화는 과거가 아닌 미래이자 또 하나의 계시화이다. 수천 년 전 암각화로 남겨진 귀신고래를 만나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철을 이용한 드로잉을 통해 나타낸다. 과거의 이야기가 작가를 통해 현재의 드로잉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철 드로잉' 은 귀신고래가 본 미래의 모습이자 작가 상상의 만다라이다.

이완, 〈Made In Myanmar-Gold〉
Made in 시리즈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다. 한 끼의 아침 식사를 원재료부터 직접 생산해서 만드는 여정을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동시대의 현상들을 경제학적 관점과 역사적 사실들을 토대로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하에서의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부터 개인에게 이르는 모든 인과관계를 거시적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영상으로 담고 있다

이용백, 〈Behind too beautiful things, there is hideousness (너무 아름다운 것, 그 너머에는 추악한 것이 있다)〉
이 영상은 작가가 한일 교류전 (〈50/50〉, 2019, 다세대 아트 싸롱, 서울, 대한민국)에 참여한 한국, 일본 작가들의 작업복을 모두 모아 현장에서 손빨래를 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퍼포먼스를 편집한 작품이다. 빨래를 하고 있는 동안 모니터에는 참여작가의 작업들이 재생된다. 오프닝 날의 화려함 뒤에는 지저분하고 고된 예술가의 땀과 고뇌가 있다.

임형준, 〈소리=Bruit(침묵)〉
'소리' 라는 개념을 통해 시대의 문화와 사회를 반영하는 그의 작품은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통해 그 내용을 전달한다. 그 한 가지로 탄압으로 암울했던 젊은 날 민주화 시대의 '소리' 를 나팔을 커다랗게 부각한 형태로 표현하여 울림 없는 침묵, 즉 '침묵의 소리' 라는 역설적 개념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내면을 나타내었다.

정혜경, 〈1억 5천만원 유니폼과 꽃〉
이 작품은 작가에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개인적 경험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꽃으로 표현된 영수증은 '작가' 와 '엄마' 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 그리고 소외를 내포하며, 최저시급의 노동자와 다르지 않은 작가 노동의 관계를 영수증이라는 사회의 물질적 매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제작한 것은 꽃일까?

한진수, 〈Memory pond, Blossoms, 낙타새와 황금알 (Camel bird and golden egg)〉
작가는 불확정적인 세계관에서 바라보는 현실의 세계는 대상의 본질보다는 변화와 흐름, 관계성을 중시하는 통찰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품들이 종내에는 수면 위에 파문만을 남기고 사라지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 삶의 과정과 현상을 상징화 했다.

강원택 KANG, WON TAEK

1968 진해
미술학사, 창원대학교, 한국
미술석사 수료, 나카사키대학교육대학원 연구생, 나가사키, 일본

개인전

- 2004 〈개인전〉, 나가사키, 일본
- 2004 〈2회 개인전〉, 나가사키, 일본

단체전

- 2018 〈문신미술 청년작가상 수상전〉, 문신미술관, 창원
- 2012 〈공간-조각전〉, 임실, 전북
- 2011 〈PURE-人間展〉, 후쿠오카, 일본
- 2009 〈젊은 시각전 - 현대미술의 단면전〉, 도립미술관, 창원
- 2007 〈미야자키 국제 현대 조각 공항전〉, 미야자키, 일본
- 2005 〈Hyu-Ga 현대 조각전〉, 미야자키, 일본
- 2004 〈Dejima Works 2004〉, 나가사키, 일본
- 1994 〈GRASS MEETING ART FESTIVAL〉, 나가노, 일본



코르크 마개가 있는 모자

2011
blue granite stone
26(w) × 12(d) × 31(h)cm



since stone age

2021
F.R.P on Acrylic color
33(w) × 20(d) × 48(h)cm



2021 nostalgia

2021
F.R.P on color
45(w) × 20(d) × 68(h)cm

일상적 모자,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는 보는 이의 심상에 따라 다양한 해석으로 다가갈 것이다. 여성들은 패션으로서의 모자, 어떤 이는 숨기고 싶은 자신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야기 보자기 등, 모자의 개념이 아닌 동화 속 “어린왕자”에 나오는 그림을 재해석하였다. 묵시적 정신세계를 치즈 형태로 얇아진 각박한 현대인들의 정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고 상단부에 있는 콜-크 마개는 인간 존재의 에너지 통로로 삶을 호흡할 수 있는 생명력을 담고 있다.

김범수 KIM, BEOM 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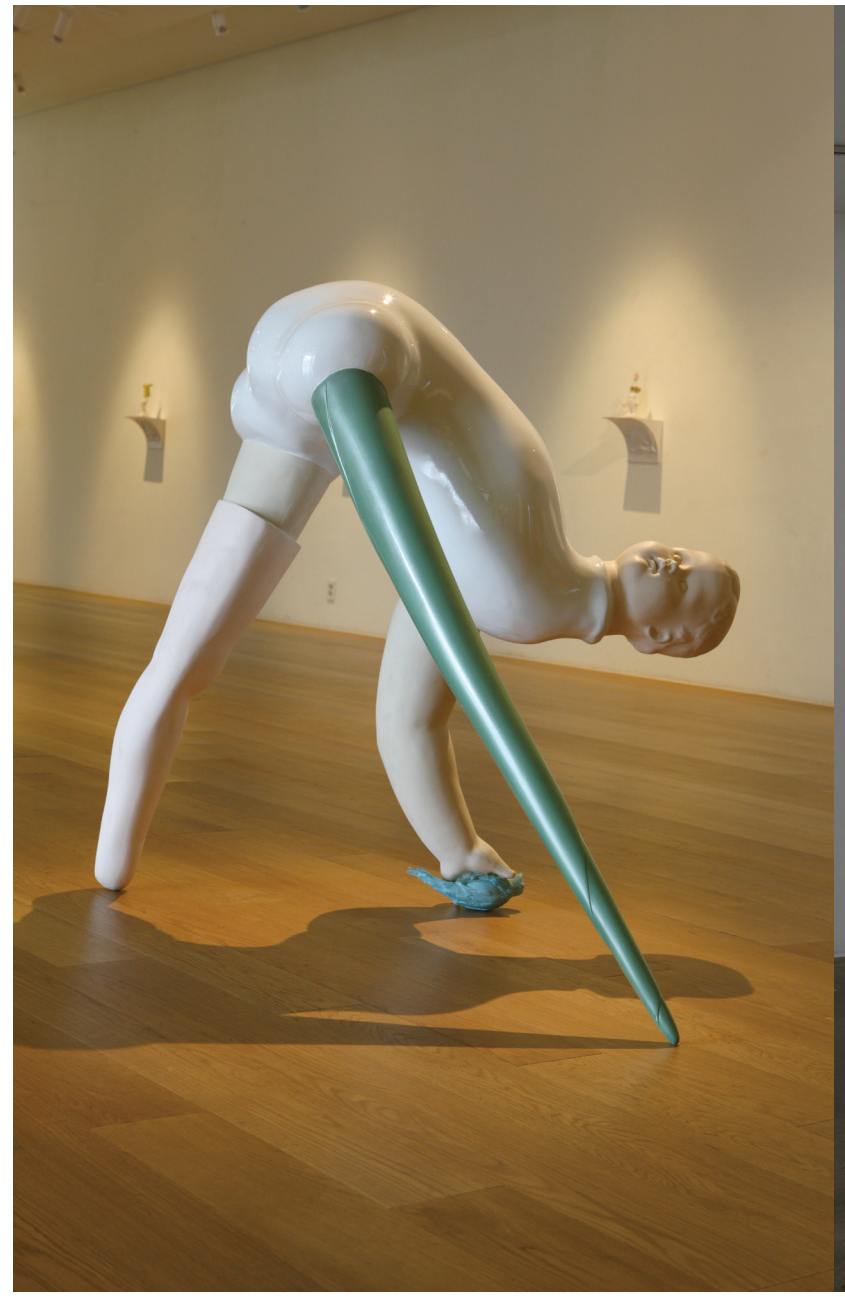
1965 서울
조형예술학, 박사(D.E.A), 파리 1대학, 파리, 프랑스
미술학 박사, 홍익대학교, 한국

개인전

- 2021 〈ti〉, KOSA 갤러리, 서울
- 2018 〈배치〉, la ville â des arts Gallery, 파리, 프랑스
- 2012 〈clonage/super-objects〉,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 2007 〈FLASH〉, 오스트로브스키 국립미술관, 모스크바
- 2004 〈La chair〉, 크로스-보자르-파리 갤러리, 파리

단체전

- 2019 〈이미지_역사와 인간사이 다섯가지 해석들〉, 토탈미술관, 서울
- 2016 〈PARADIGM of MEDIA+ART〉, 화이트 블럭 아트센터, 파주
- 2015 〈오픈필드 서울/교토〉, HOMA 미술관, 서울
- 2014 〈인트로 INTRO 국립현대미술관201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 2013 〈상수 & 이와쿠라〉, Kyoto International Community House, 교토, 일본
- 2013 〈두개의 유토피아〉, GS칼텍스 예울마루, 여수
- 2012 〈20th ANNIVERSARY소나무, 파리-서울〉, 아라아트 미술관, 서울
- 2011 〈하이쿠 조각2011〉, 타이페이국립예술대학(TNUA), 대만
- 2008 〈부산비엔날레 : EXPENDITURE〉,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07 〈생각하는 I〉, 성곡미술관, 서울



Super-object22
2015
resin
160(w) × 160(d) × 120(h)cm



Migraine
2014
resin, steel, stainless steel
35(w) × 63(d) × 216(h)cm, installation

오브제들을 파편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중요한 방법론으로 쓰는데, 이것은 신체적 위계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몸정치학적 문제의식을 드러냄이라 할 수 있다. 인형의 눈을 삭제하거나 혹은 반대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방법을 통해 그는 시지각을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눈'의 경험이 아닌, 외부대상이 주체 내부로 침범해 들어오는 '응시'(gaze)의 경험으로 드러낸다. 그럼으로써 시지각을 감각이 아닌 '충동'으로, 대상이 가진 의미의 소멸로, 일종의 '시각적 트라우마'의 경험으로 나타낸다. 또 나아가 인간, 동물, 무생물이 무질서하게 조합된 형상을 통해 바타이유가 말한 바 있는 '수평화하기'(horizontalization), 즉 정신/물질 간의 수직적 위계질서가 수평적, 동물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을 표현하여 ti로 보이게 한다.

김정은 KIM, JUNG EUN

1983 서울
미술학사,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 한국
미술석사,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 한국

개인전

- 2020 〈교차맵프로젝트 INTERSECTION MAP PROJECT : WALK ON THE WATER _01〉, 인스턴트루프 ,서울
- 2020 〈BLUE DOT_시각예술 선정작〉, 예술공간 트라이보울 초이스, 인천
- 2019 〈moving the green ray〉, 갤러리 조선, 서울
- 2018 〈BLUE DOT :37' 35' 02.8"N 127"01' 21.6"E〉, 세마창고 B, 서울
- 2015 〈SELF MAPPING:기억의 이동, 이동의 기억〉, OCI미술관, 서울

단체전

- 2021 〈pr:op〉, hall1, 서울
- 2021 〈when we are women artists〉, 온수공간, 서울
- 2021 〈undoing_1〉, 임시공간, 인천
- 2020 〈2021 cre8tive report〉, oci미술관, 서울
- 2019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 2018 〈권진규아틀리에 X 미인도〉, 미아리하부공간-미인도, 서울
- 2017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 금호미술관, 서울
- 2017 〈시간여행자의 시계〉, 문화역 서울284, 서울
- 2017 〈종이가 형태가 될 때-종이조형〉, 뮤지엄 산, 원주
- 2016 〈6각의 방〉, 금호미술관, 서울
- 2016 〈인터로컬2016-그래도 나는 간다〉,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대전
- 2015 〈신지도제작자〉, 송원아트센터, 서울
- 2015 〈PAPER MONOLOGUE〉,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서울
- 2014 〈화이트스펙트럼〉, 수원시미술전시관, 수원
- 2014 〈신진작가 발굴전 - 상실의 기록〉, 성북예술창작터, 서울





겹쳐진 레이어

2020
목재 선반, 가변 설치
240(w) × 42(d) × 60(h)cm

김정은 작가는 지도를 지표적으로 활용하여, 길, 장소, 공간에 대해 다층적으로 성찰한다. 이러한 지도 그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자유롭게 상상해보고, 이에 얽힌 삶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도록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신의 주관적 인식 체계를 따라 주변을 맵핑하는 작업을 해왔다. 맵핑 형식의 작업들이 갖는 지리, 환경을 접근하는 방식의 토대 위에 있는 작업임에도 특이성은 접근의 결과물을 시각화하며, 맵을 다양한 조형적 실험들로 감각적으로 제시한다. 전시작 〈겹쳐진 레이어〉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그 주변의 길들을 단순한 길로 그리기도 하고, 길의 흔적이자 몸의 움직임을 기록한 드로잉 작업에다 트레이싱을 유리판에 겹쳐 빛의 반사로 중첩된 레이어로 제작하였다. 기억이 겹쳐지듯 포개어 시간과 길의 흔적들을 만들어낸다.

뮌 MIOON [김민선 & 최문선]

김민선 KIM, MIN
1972 서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퀼른 미디어 예술대학 연구과정 졸업(Prof. Zielinski and Prof. Jung),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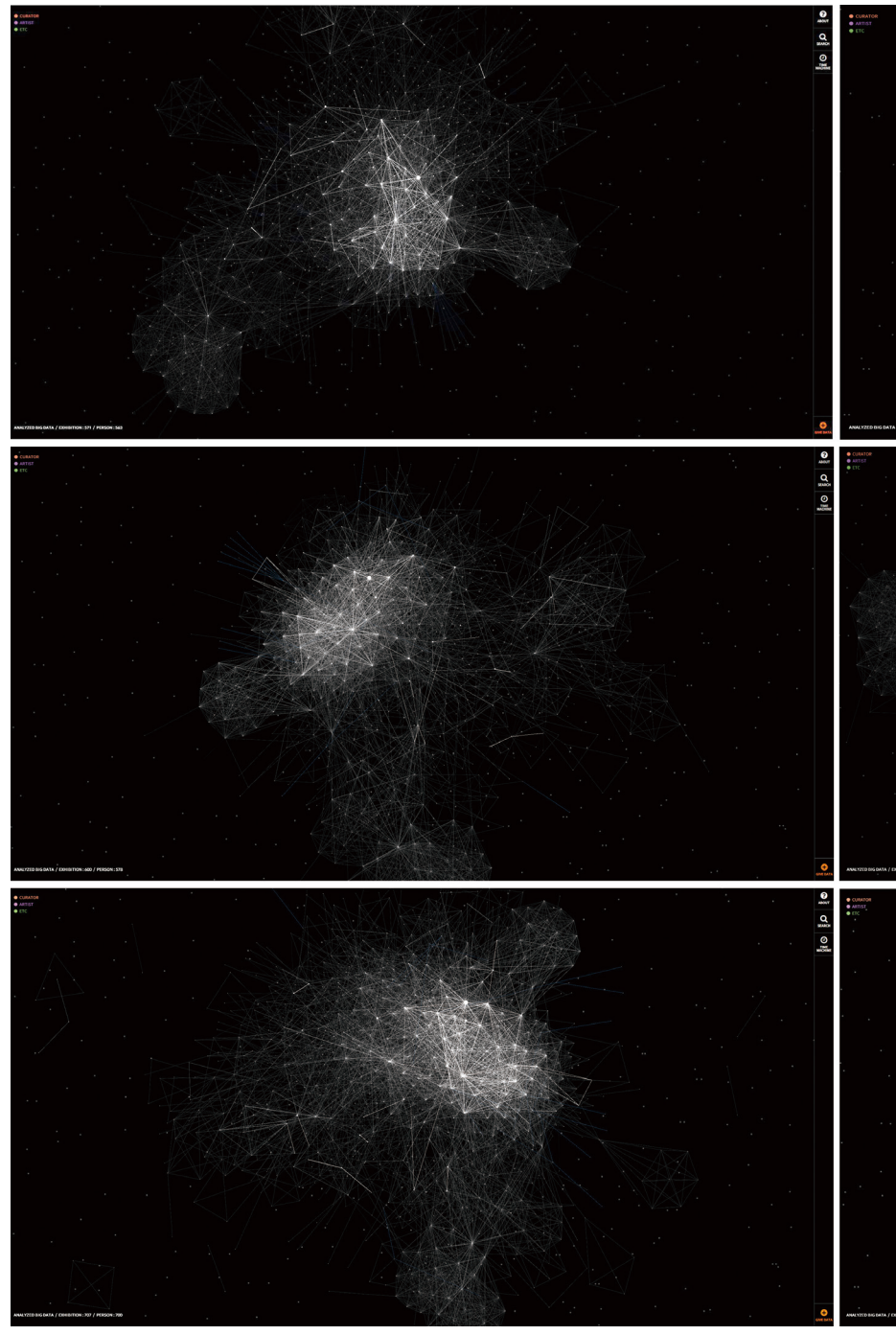
최문선 CHOI, MOON
1972 서울
뒤셀도르프 미술대학 졸업. 독일
마이스터슐러(Prof. Jetelova). 뒤셀도르프 미술대학. 독일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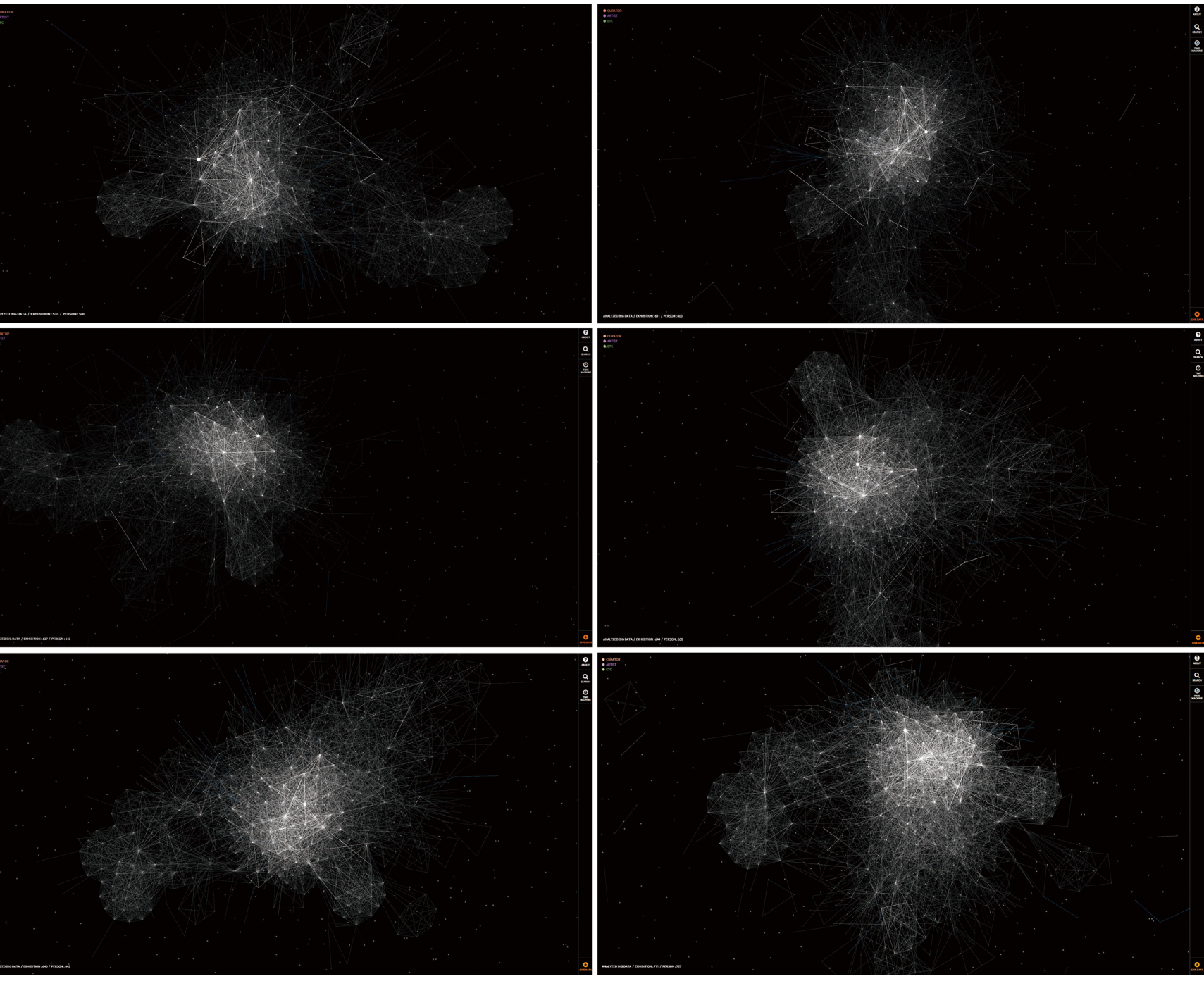
- 2017 〈미완의 릴레이〉, 아르코미술관, 서울
- 2016 〈MIOON ZIP: Oh, My Public〉, Paradise ZIP, 서울
- 2014 〈기억극장〉, 코리아나미술관 space*c, 서울
- 2013 〈Kaleidoscope〉, 스페이스 캔, 베이징
- 2011 〈Lead Me To Your Door!〉,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Superstudio, 밀라노

단체전

- 2017 제15회 아시아아트페스티발〈Multiple Spectacle Art from Asia〉, 닝보미술관, 중국
- 2017 평창비엔날레 〈다섯 개의 달: 익명과 미지의 귀환〉, 강원도
- 2016 〈Now Watching Strasbourg-Seoul 2005-2015〉, CEAAC, 스트라스부르
- 2015 6회 모스크바비엔날레 특별전 〈 Reverse Point Asia〉, 차리치노 국립미술관, 모스크바
- 2014 〈동시적 울림〉, 포르타밧 미술관, 부에노스아이레스
- 2011 〈LICHTSICHT, 3rd Projection Biennale〉, 바트 로텐펠데(Bad Rothenfelde)
- 2010 〈리버풀 비엔날레-Media Landscape, Zone East〉, CUC, 리버풀
- 2008 5회 서울 국제 미디어 아트 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08 〈확장된 감각_한국/일본 미디어 아트의 현재〉, ICC, 도쿄
- 2008 부산국제비엔날레 바다미술제, 부산



Artsolaris 아트솔라리스
2016
웹아트(영상도큐멘테이션)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래밍



지금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서 한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내는 일은 쉽지 않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진 사건만 하더라도, 많은 변수들과 그 후속 영향들로 실은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하물며 어떠한 시스템(界)의 윤곽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의 많은 크기의 영역(界)들은 그 인간 주위에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응집하고 분화하며 그 형태를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다. 아트솔라리스에서는 미술계 공공(公共)의 영역에 대한 "진행되는 관찰"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술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만 존재했다면, 그것에 대한 관찰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많은 산더미와 같은 개별적인 데이터들이 네트워크 이미지를 그려낸다. 단 한 사람, 단 한 개의 사건이 추가되는 순간 그 이미지는 다시 변화하고, "관찰"이라는 것이 가진 그 주관적인 화각(畵角)의 의미처럼 예상치 못한 형태로 유기화(有機化) 한다.

이기일 LEE, KI IL

1967 곡성
중앙대학교 조소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조소학과 졸업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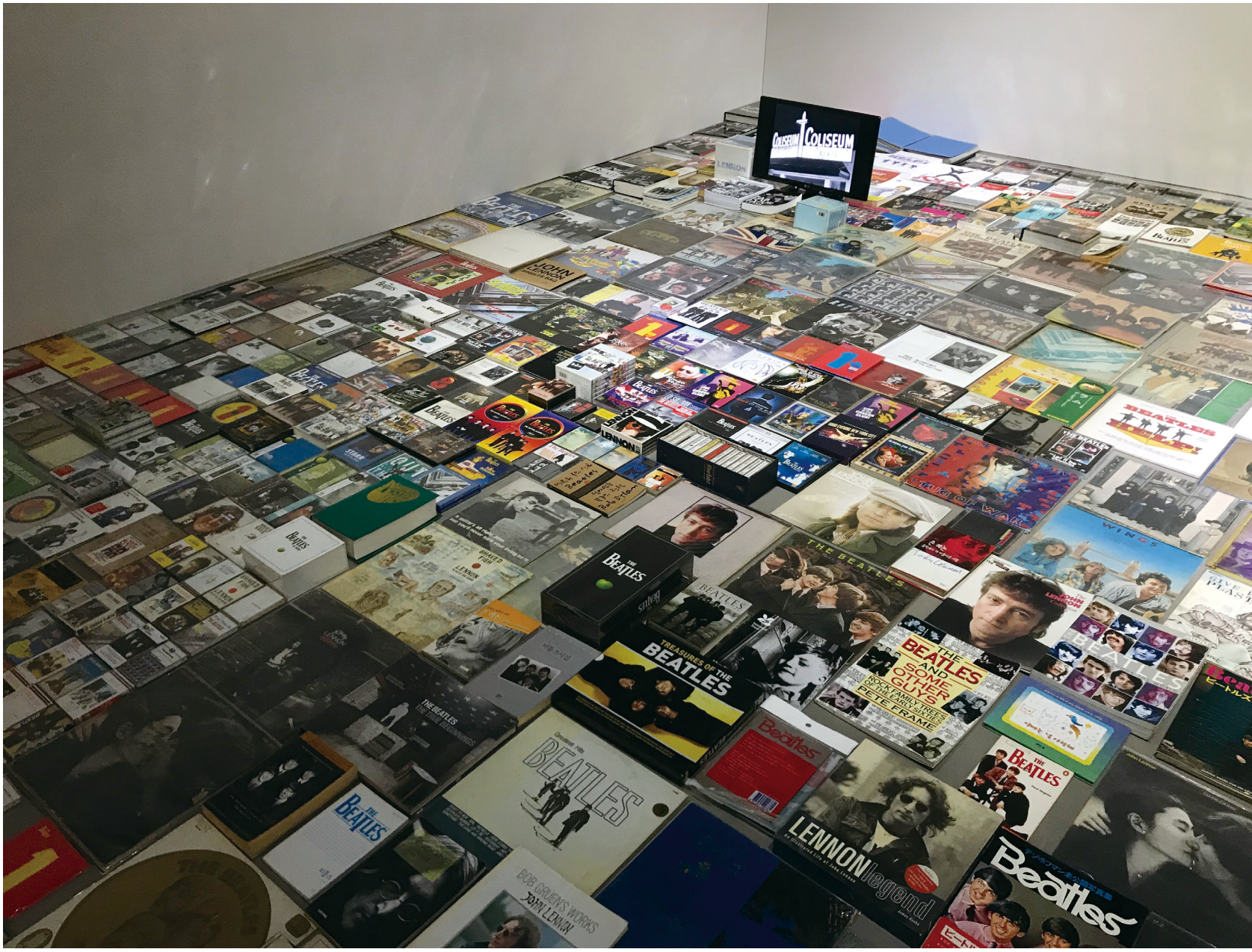
- 2018 〈Koon-ni〉, 비컷갤러리, 서울
- 2017 〈1951-2005 겨울, 매향리 스튜디오〉, 화성 / 플레이스 막, 서울
- 2012 〈한국의 비틀즈〉, Kazimier, Liverpool, 영국
- 2011 〈비틀즈를 찾습니다〉,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09 〈괴짜들 群雄割據 한국 그룹사운드(1960-1980)〉, 토탈미술관, 서울

단체전

- 2019 〈GMoMA 공공미술 2015-2018 : 함께 할래〉, 경기도미술관
- 2016 〈영웅본색〉, 문화역서울 284
- 2015 〈조우〉,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 2013 〈뉴미디어 소장품전, 미래는 지금이다〉, 국립현대미술관
- 2013 〈대중의 새발견-누가 대중을 상상하는가?〉, 문화역서울 284
- 2013 〈르포르타주〉, LIG 아트스페이스
- 2012 〈The Art on Your Wall〉, Artclub1563
- 2012 〈Plastic days〉, 포항시립미술관
- 2009 〈I Robot〉, 소마미술관



김치스(1965년, 자료제공-심형섭)
2009
잉크젯 프린트
193(w) × 156(h)cm



비틀즈 마니아

2020
비틀즈 관련 LP, 카세트 테이프, CD, 서적 등
가변 설치

이 작업은 비틀즈(Beatles)의 위대했던 음악과 남한의 사회적 상황이 교묘하게 만나는 지점을 드러내려 하였으며, 그 시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터넷도 저작권법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대에 외국의 음악은 과연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이와 같은 단순한 질문을 시작으로 모인 오브제들, 비틀즈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에서 재생산된 이미지들의 감춰진 속살을 드러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승연 LEE, SEUNG YO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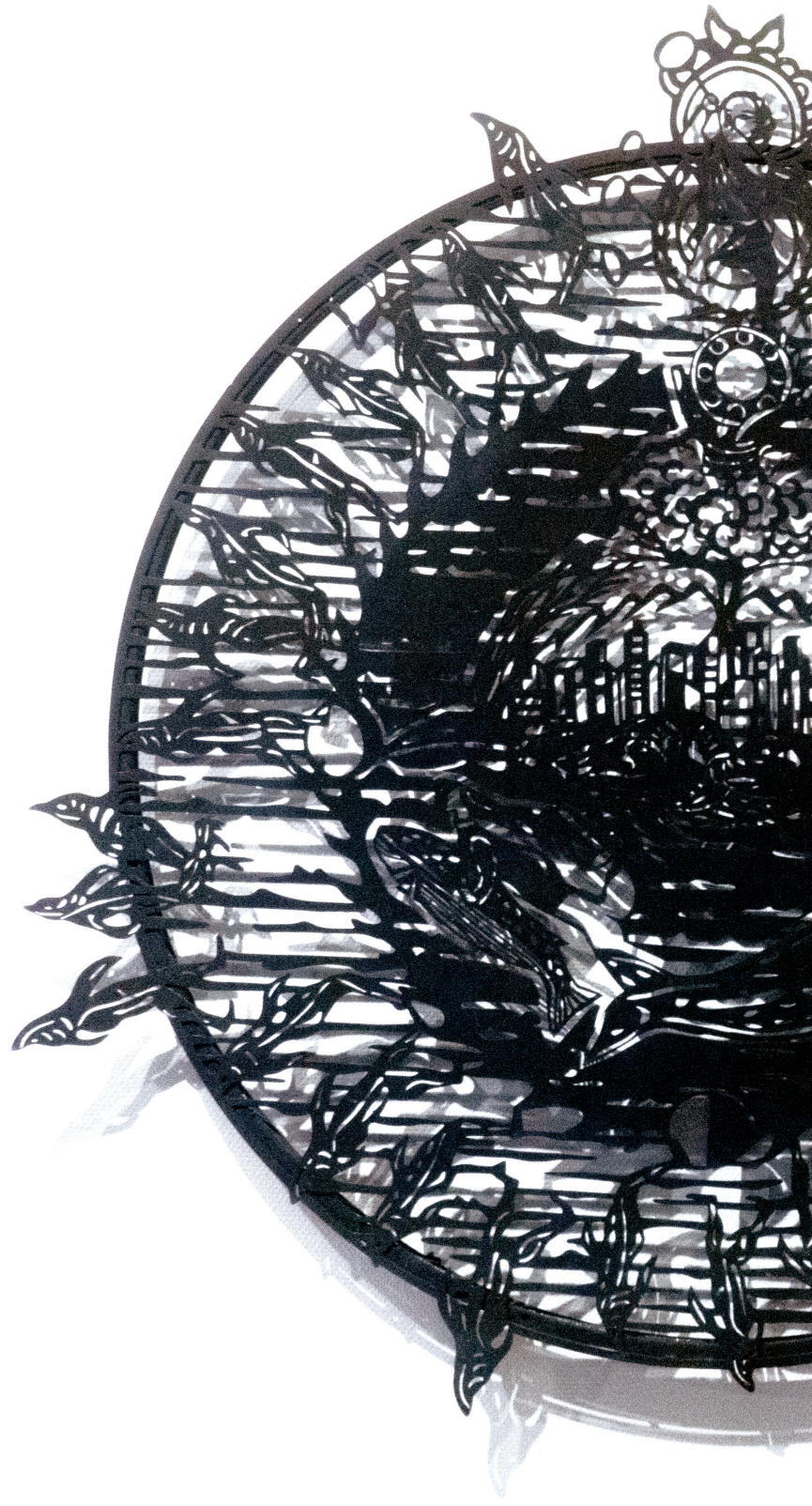
1982 서울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 디자인 석사 졸업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센트럴 세인트 마틴)
Narrative Environment 석사 졸업, 영국

개인전

- 2021 〈재난의 시대, 몽상 판타지아〉, 광주 미디어 338 미디어 아트 플랫폼, 광주문화재단, 광주
- 2020 〈유리병 바다, 가오슝〉, 가오슝 피어 투 피어 아트센터, 가오슝, 대만
- 2020 〈신세계환상곡〉 , 수림아트센터, 서울, 대한민국
- 2018 〈선의 환상〉, 서울시립미술관 분관 세마창고, 서울, 대한민국
- 2015 〈OH MY GODS: 2100년 무당, 천사 그리고 스토리텔러〉, 캔 파운데이션, 서울
- 2014 〈OH MY GODS:2100년 당신의 믿음〉, 문화역 284, 서울

단체전

- 2021 〈플라잉 연수〉, 유네스코 학습도시 컨퍼런스 축제 작품 제작 및 연출, 송도달빛축제공원, 인천
- 2021 〈팔팔한 도시 여행〉, 고양 아람누리 미술관, 고양
- 2021 〈현대미술의 시선전〉,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 2020 〈기이하고 수상한 기당 원더랜드〉, 기당미술관, 제주
- 2020 서울평화문화축제, 〈도봉산 명랑운동회〉, 평화문화진지, 서울
- 2019 구례 화엄사 영성음악제 〈화장〉, 설치미술 참가, 구례
- 2019 〈산려소요〉, 세종문화회관 야외큐레이팅, 서울
- 2019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 〈네이처〉, 만리동 우리은행 건물, 서울
- 2018 울산 태화강 국제 설치 미술제 〈잠시 신이었던 것들〉, 울산
- 2018 SeMa예술가 길드 〈만랩〉, 남서울 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 2015 〈플라스틱 신화〉, 국립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전, 광주, 한국





귀신고래계시화

2021
지름120cm 원형 철판 외 가변사이즈 철조각
가변 설치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의 눈으로 바라본 '귀신고래계시화', 암각화는 나에게 과거 아닌 미래이자 또 하나의 계시화다. 수천 년 전 암각화를 현재까지 온전히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의 문명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반구대 암각화에 등장하는 귀신고래를 만나 고래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그려본다. 현재를 사는 나는 아득한 과거의 그들이 되어 먼 훗날의 이야기를 조선소의 상징인 철에 새긴다. 철로 그리는 드로잉, '철 드로잉'은 귀신고래가 본 미래의 모습이자 내 상상의 만다라다.

이 완 LEE, WAN

1979 서울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조소전공 졸업, 한국

개인전

- 2017 〈Counter Balance〉,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 (2인전: 이완, 코디최), 2017 베니스비엔날레, 이탈리아
- 2016 〈무의미한 것에 대한 성실한 태도〉, 313 art project, 서울
- 2014 〈Made in〉, 두산 갤러리, 뉴욕
- 2014 〈우리에게, 그리고 저들에게〉, 사루비아다방, 서울
- 2013 〈아아, 순정〉, 대구시립미술관, 대구

단체전

- 2021 〈설탕과 소금〉, 술술센터, 서울
- 2021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 2021 〈타임워커〉,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 2020 〈페르마타〉, SBS D Forum 개막식 미디어아트, SBS TV 방송
- 2020 〈당신 속의 마법〉, 대구미술관, 대구
- 2019 리움미술관 소장품전 〈한국의 동시대 미술〉,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 2019 마도우 트리엔날레 〈Sugar industry〉, 마도우, 대만
- 2018 〈아직 살아있다〉,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 2017 〈Continua Sphères ENSEMBLE〉, Centquatre Paris, 파리
- 2017 〈레슨제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과천



Made In Myanmar-Gold

2014
순금
0.5(w) × 0.5(d) × 0.5(h)cm, -ep1,(E.3 ep2)



made in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다.
한끼의 아침식사를 원재료부터 직접 생산해서 만드는 여정을 담고 있다.
아시아 10개국을 방문하여 그 나라의 역사적인 생산품을 직접 생산하며 생산품에 관련된 역사와 문화에 대한 독백을 담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한 작업이다.
작업은 생산물과 다큐멘터리 영상작업으로 보여진다.

이용백 LEE, YONG BAEK

1966 김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 연구심화 과정 조각과 졸업, 독일

개인전

- 2020 〈브레이킹 아트(제1회 자산미술상 수상 전시)〉,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 2018 〈한국적 모자이크〉, 매향리 스튜디오, 화성, 한국
- 2016 〈낯선 산책〉, 학고재, 서울
- 2014 〈핸드헬드 슈팅〉, 슈피너라이 베르크샤우, 라이프치히, 독일
- 2011 〈사랑은 갔지만, 상처는 아물겠지요〉,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베니스, 이탈리아

단체전

- 2018 〈Cinema : The Mood Mosaic〉, Museum od Arts and Design, 뉴욕
- 2016 〈난징 국제 예술제(NJIAF)〉, 난징, 중국
- 2015 〈파라독스 오브 플레이스 : 컨템포러리 코리안 아트〉, 시애틀국립미술관, 시애틀, 미국
- 2015 〈말뫼 포토 비엔날레〉, 말뫼, 스웨덴
- 2015 〈싱가폴 오픈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SOMAF)〉, 싱가폴, 싱가폴
- 2014 〈센젠 독립 에니메이션 비엔날레〉, 센젠, 중국
- 2013 〈무브 온 아시아: 아시아 비디오 아트 2002-2012〉, ZKM, 카를수루에, 독일
- 2013 〈아베스타 아트 2013〉, 아베스타, 스웨덴
- 2009 모스크바 비엔날레, 모스크바
- 2009 류블랴나 그래픽아트 비엔날레, 슬로베니아







너무 아름다운 것, 그 너머에는 추악한 것이 있다

2019
싱글채널 비디오 + 설치(한국 일본 작가들의 작업복, 빨래줄, 대야, 빨래판, 빨래방망이, 빨래비누)
30분, 가변 설치

이 영상은 작가가 한일 교류전 (〈50/50〉, 2019, 다세대 아트 싸롱, 서울, 대한민국)에 참여한 한국, 일본 작가들의 작업복을 모두 모아 현장에서 손빨래를 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퍼포먼스를 편집한 작품이다. 빨래를 하는 동시에 모니터에는 참여작가의 작업들이 재생된다.

너무 아름다운 것, 그 너머에는 추악한 것이 있다.
오프닝 날의 화려함 뒤에는 지저분하고 고된 예술가의 땀과 고뇌가 있다.
퍼포먼스가 시작되면 11명의 작업복 숫자만큼의 바스켓의 물이 하나의 대야에 담기고 첫 번째 작업복의 세탁이 끝나면 한 바스켓의 물이 덜어진다. 이것이 반복된다. 제한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오염도는 점점 심해질 것이고 오염된 물로 인해 빨래가 되는 것인지 더러워지는 것인지 모호한 경계에 다다른다. 세탁 되는 과정에서 양국 작가들의 땀과, 창작 과정에서 나왔을 노폐물이 희석되고 교환되고 오염되기도 한다. 문화 교류의 속성이자 숙명이다.

임형준 LIM, HYOUNG JUN

1959 서울
Université Paris-Ⅷ Arts Plastiques Mâitrises
부산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 박사

개인전

- 2021 〈문신미술상 수상자 초대개인전〉, 문신미술관
- 2014 〈LIM HUYOUNGJUN' SOUNDSS〉, 부산아트센터
- 2002 〈임형준 조각초대전-소리와의 만남〉, 마산MBC아트홀
- 1993 〈임형준의 소리〉, 동아갤러리 초대
- 1991 〈소리와의 만남〉, 현대미술관 초대

단체전

- 〈현대미술의 동향-인간, 그 얼굴과 역사〉, 문예진흥원
- 〈이 작가를 주목한다〉, 동아갤러리
- 〈한중조각가 교류전〉, 루메이미술관, 중국
- 〈터키-한국 수교 50주년 기념전〉, 이스탄불, 터키
- 〈20C 경남미술-V〉, 경남도립미술관
- 〈Nomadifesta2004〉, Kastlliotissa space, 사이프러스
- 〈OPENSIA 2004〉, Hotel Des Bains, 이탈리아
- 〈경남국제조각심포지엄〉, 경상남도 도청
- 〈익산국제돌조각심포지움〉, 미륵사지, 익산



소리=Bruit(침묵)
2010
혼합재료
500(w) × 150(d) × 230(h)cm



"시대와 사회를 반영한다"라는 '소리' 본질은 표현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통해 그 내용을 충실히 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음이 여실하다.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탄압으로 암울하고 어지러웠던 어떤 젊은 날의 세태에서 그 '소리'는 나팔을 커다랗게 부각시킨 정형화된 양태로 나타난다. 그것은 소리 없는 외침 마냥 올림 없는 침묵으로 시대를 또렸이 반영하고 있다. 지식인으로서의 소명과 작가로서의 사명은 그로 하여금 '침묵의 소리' 라는 역설적 메세지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기록하게 한 것이다.
(김상철의 평론중에서/2010년)

정혜경 JUNG, HYE K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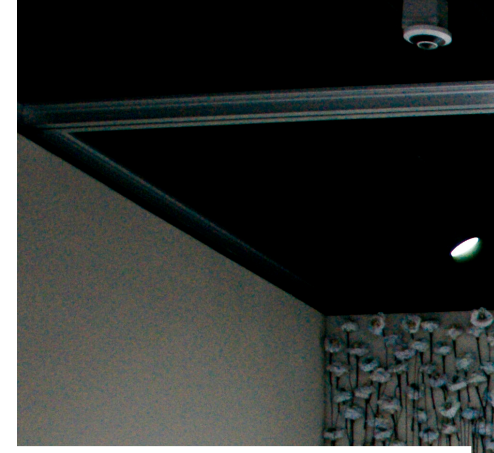
1978 청주
미술학사,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 한국
미술석사, 성신여자대학교 조소과, 한국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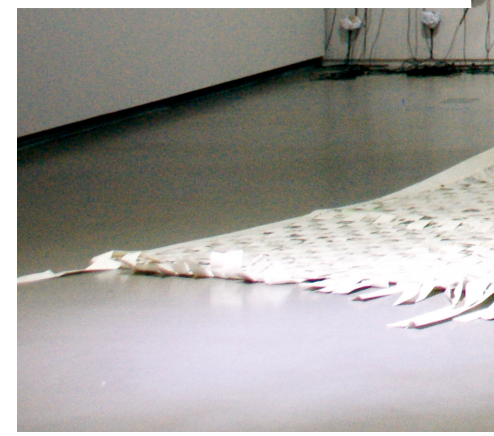
- 2018 〈도시환영- 미래분양사무소〉,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 2017 〈시간이 전시가 될 때〉,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복도갤러리, 서울, 한국
- 2013 〈이웃을 두드리다- 사연 없는 집〉, 아트창고 쉼_제주문화재단 후원, 제주, 한국
- 2008 〈김광석 보고서〉, 대안공간 갤러리꽃, 서울, 한국

단체전

- 2020 〈시선 37.7도〉, DTC 아트센터, 대전, 한국
- 2020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손안에 작은 광석〉, 울산, 한국
-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특별전 : 무심기행, 도원의 멈춰진 시간〉, 청주, 한국
- 2018 〈안평대군의 비밀의 정원〉, 춘천문예회관 하동아트센타, 춘천, 한국
- 2017 〈내가 사는 피부〉,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 2014 〈지리산 아트프로젝트 '우주. 예술. 집'〉, 지리산 실상사, 남원, 한국
- 2014 〈몸-감각 회복〉, 자하미술관, 서울, 한국
- 2013 〈주안미디어페스티벌〉, 주안 유나이티드 FC 축구경기장, 인천, 한국
- 2012 〈빙고! 쿠바냉장고로 시작된 일상&미술이야기〉, 세종문화회관, 서울, 한국
- 2010 〈아트위트 ART WIT〉, 3·15 아트센터, 성남아트센타, 창원, 성남, 한국
- 2008 〈현실과 허구의 경계읽기〉,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 서울, 한국
- 2008 〈아트인부산2008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한국







1억 5천만원 유니폼과 꽃
2018
1억 5천만원 어치의 영수증과 스테인레스 스틸
500(w) × 150(d) × 230(h)cm



1997년 첫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은 1400원이었고, 그 후 22년이 지난 2018년 시급은 7530원이었다. 주 5일 8시간 22년을 한 푼도 안 쓰면 154,840,400원을 모을 수 있다. 작가가 모아놓은 영수증을 다 모아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작가에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작업을 조금이라도 하려면 동사무소에서 어린이집 종일권을 따야 했는데 '작가'는 사회에서 인정하는 근로 형태가 아니라서 작가 엄마는 고단한 사투를 벌여야 했다. 나의 직업 작가는 사회제도 안에서도 인정받기 힘든데 엄마, 주부로써도 소외되는 경험을 하였다.

최저시급 노동을 대변해줄 1억5천만원 유니폼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또 연속적인 작가의 노동을 은유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되짚어 보고 건강한 삶의 기준을 다시 생각해보고자 했다.

한진수 HAN, JIN 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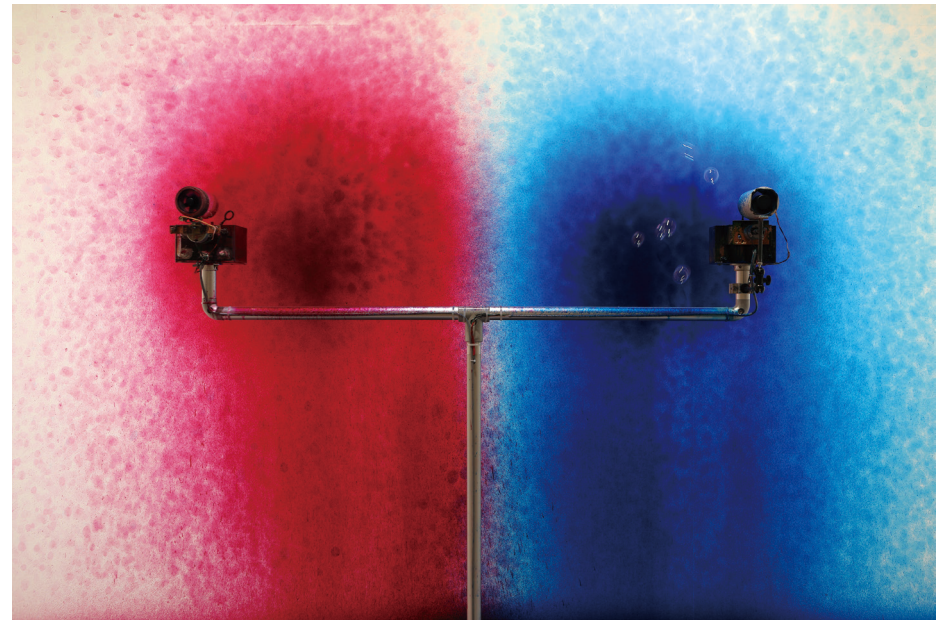
1970 서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각과 졸업
Sculpture Dept in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Chicago. USA(MFA)

개인전

- 2018 〈Karma Study〉, Marc Straus 갤러리, 뉴욕, 미국
- 2018 〈Liquid memory〉,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 서울
- 2017 〈Liquid memory〉, HVCCA, Peekskill, 미국
- 2016 〈Fantasy factor-Looking for gold elephant〉, Force gallery, 베이징. 중국
- 2013 〈The hive〉, Force gallery, 베이징, 중국
- 2012 〈Fantasy factor〉, 갤러리 압생트, 서울
- 2012 〈Under the full moon〉, Reis gallery 싱가포르
- 2011 〈Weight〉, 자하미술관, 서울
- 2008 〈Vanilla Square〉, 두산갤러리, 서울
- 2005 〈Public Garden〉, White Wall Gallery, 서울
- 2001 〈공중-The public, the air〉, 인사미술공간, 서울
- 1999 〈像〉, 덕원갤러리, 서울

단체전

- 2021 〈전방〉, 오두산 통일 전망대, 경기도
- 2021 〈버튼〉, 거제문화예술회관, 거제
- 2020 〈Il volo〉, 갤러리 소향, 부산
- 2020 〈기술에 관하여〉,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 2019 〈Sincerely yours〉, 갤러리 수, 서울
- 2020 〈한국 현대조각의 단면〉, 서소문성지미술관, 서울
- 2018 〈2018' Art stage Singapore〉, Marina bay sand hotel, 싱가포르
- 2018 〈Every day is a good day〉, Spiral, 동경, 일본
- 2017 〈The white heat〉, Marc Straus gallery, 뉴욕, 미국
- 2017 〈화화-반려 · 교감(畵畵伴侶.交感)〉, 세종문화회관, 서울
- 2017 〈Moving Korea〉, 주 필리핀 한국문화원, 필리핀
- 2016 〈The apotheosis of the fish market〉, Pop-up exhibition, Marc Straus gallery Annex, 뉴욕. 미국



Blossoms
2020
비눗물, 잉크, 송풍기, 구리, 알루미늄, 철, 플라스틱
1000(w) × 150(d) × 400(h)cm



Memory pond

2020
도자기, 철, 물, 염료, 비눗물, 송풍기, 구리
160(w) × 210(d) × 110(h)cm



미래 기억(A future memory)

2019
발견된 오브제, LED, 유리, 플라스틱
29(w) × 29(d) × 62(h)cm

셀 수 없는. 의미가 있었던.
무심하도록 아쉬운. 지나간 것들.
–
다원적 세계에. 개성의 신화에 그늘진.
낙관적 비관을 위한 열린 관조.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Section2

오픈스튜디오

- 영상과 메타버스로 만나는 창원의 미술

김옥숙 KIM, OK SUK
김희곤 KIM, HEE GON
박배덕 PARK, BAE DEOG
박상복 PARK, SANG BOK
이태호 LEE, TAE HO
정순옥 JEONG, SOON OK



zepeto.me

2022년 창원조각비엔날레의 〈특별전 1- 오픈스튜디오〉 프롤로그 전시는 2022년 본전시를 미리 살펴보기 위한 전시이며, 창원의 미술 문화의 생태계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미술 문화 생산의 근원지로서 오픈 스튜디오는 창원의 예술가들은 물론 국내외의 예술가들, 국내외의 관람객들이 창원의 미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마산, 창원과 진해가 하나로 통합한 창원시 곳곳에 자리한 오픈스튜디오를 오가며 작가를 만나는 경험은 세계적인 창원조각비엔날레가 개최되게 된 창원의 사회와 문화적인 배경을 하나하나 체험하며 인식하는 장(場, field)이 될 것이다.

〈특별전 1- 오픈스튜디오〉는 창원의 미술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이지만 또한 사회와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별전 1- 오픈스튜디오〉 프롤로그에는 2022년 창원조각비엔날레에서 특별전으로 개최하게 된 목적을 마산과 창원, 그리고 진해에 거주하는 6명의 작가들을 통해 간략하게 담아내었다. 6명의 작가들은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거주를 한 작가들로서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추진위원들이자 마산, 창원, 진해의 미술협회 회장들의 추천을 받았다.

〈특별전 1- 오픈스튜디오〉 프롤로그는 여행자의 시선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관람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창원의 고유한 미술 문화뿐 아니라 창원과 마산, 그리고 진해의 고유한 문화적 정취를 조금이나마 영상과 메타버스의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2022년 창원조각비엔날레에서 특별전으로 오픈스튜디오 전시를 개최하고자 한 의도는 노동효 여행 작가가 오픈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작가와 만나 이야기하는 영상 장면으로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각각의 작가들이 작업실에서 작업하는 장면들, 그리고 작업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얼굴과 온몸에서 배여 나오는 삶의 이면들은 미술 문화의 체험을 갤러리와 미술관의 울타리를 넘어 작가의 오픈스튜디오로, 그리고 작가의 일상의 문화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 오픈 스튜디오전은 현실에서 마주하는 작가들의 작업실의 풍경을 작가들이 직접 제작하여 만든 작업실과 작업실의 내부 풍경들을 통해 작가의 미적인 취향을 체험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특별전 1- 오픈스튜디오〉 프롤로그는 메타버스에서 샘플로 작업실을 제작하고, 6명의 작가들의 작품들을 걸어 놓았다. 본 전시에서는 오픈스튜디오에 참여한 작가들이 직접 제작하고 내부를 꾸민 작업실 풍경들을 보게 될 것이다.

2022년 창원조각비엔날레의 〈특별전 1- 오픈스튜디오〉 프롤로그는 깜깜한 밤에 목적지만을 향해 질주하는 것이 아닌 대낮에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며 여행하는 것의 서막과도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점에서 점으로의 여행이 아닌 선에서 선으로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옥숙 KIM, OK SUK

- 개인전 33회 및 단체전 360여회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 3·15미술대전 초대작가상
-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초대작가상
- 한국미협, 마산미협 이사
- 문신미술상 운영위원
- 경남구상작가회 부회장
- 경남여성작가회 등

나는 자연이 품고 있는 모습을 그린다.
화폭에 담기면 고요한 정물로 있지만,
꽃은 매순간 모습이 바뀌고,
새와 나비는 잠시도 날개짓을 멈추지 않고,
계곡물은 쉬지 않고 흐른다.
이렇게 잠시도 멈춤없이 흐르고 있는
생명의 흐름을 그린다.











수련과 잉어

2021
장지에 채색, 분채
65.1(w) × 45.5(h)cm

주남저수지

2020
장지에 채색, 분채
53.0(w) × 45.5(h)cm

솔

2019
장지에 채색
53(w) × 80.3(h)cm

김희곤 KIM, HEE GON

- 개인전 14회(창원, 마산, 서울, 일본)
- 단체전 · 그룹전 100여회
- 한국미술협회 회원
- 경남수채화협회 회장
- 창원미술협회 회원
- 마산대학교 외래교수

마음 속의 풍경과 눈 앞의 풍경이 하나가 된다는 것 나에게 바다는 이런 기억을 현실화시켜주는 공간이다.
작가에게 풍경은 그냥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이 담긴 공간이기 때문이며 그속에 파도가 있다.
바다의 파도는 포말을 만들고 거친 용틀임을 한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작업은 그다양한 표정을 현실화시키고 미세한 표정을 얻어낸다.
자신의 눈을 통해 재발견한 바다는 새로운 에너지로,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그려진다.

대상(바다&파도)이 가진 항시 유동적이며 무한한 변화는 자연의 또 다른 모습이며 작가는 이 속에 담긴 생명력과 그 역동적인 현상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곳에 나만의 바다가 있다. 인간이 살아가고 태어난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찬양하며, 사실주의적 표현을 빌어 시각적 경험의 극대화를 이루고자한다.







breaking waves

2016
watercolor
102(w) × 55(h)cm



breaking waves

2016
watercolor
50호 변형



breaking waves

2016
watercolor
105(w) × 45(h)cm

박배덕 PARK, BAE DEOG

- 개인전 31회
- 단체전 400회
- 초대전 다수
- 국제전 다수
- 한국 현대 입상화 아카데미교실 운영

번개처럼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컴퓨터, 디지털, 스마트 시대 등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용어들이다. 디지털 인쇄 기술이 복제해 내고 있는 그림들까지 진위를 가려내기 힘들어진다. 벽에 걸려 있는 그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나는 미래를 더듬어 본다. 나의 그림은 다섯 면을 가진 입체의 몸체로 변하게 하고 발과 다리를 달아주어 공간을 거닐게 한다, 벽을 떠나서 디지털 그림이 따라오지 못하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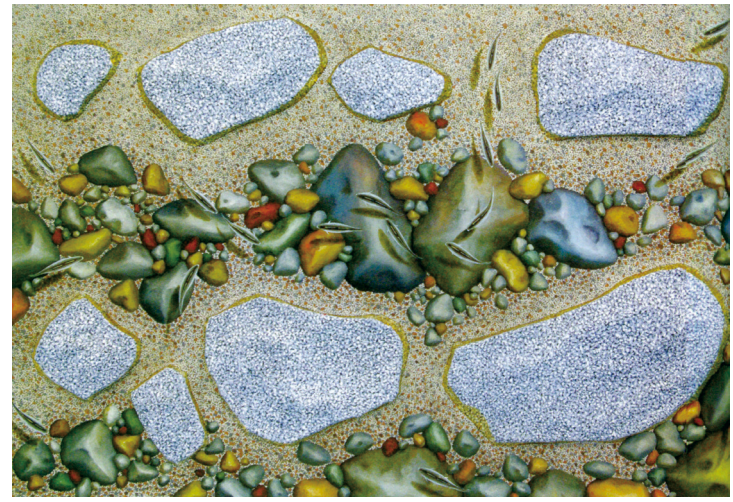






기원의 흔적

2018
혼합재료
90.9(w) × 65.1(h)cm



징검다리

2018
혼합재료
100호 변형



시인의 흔적

2018
혼합재료
200호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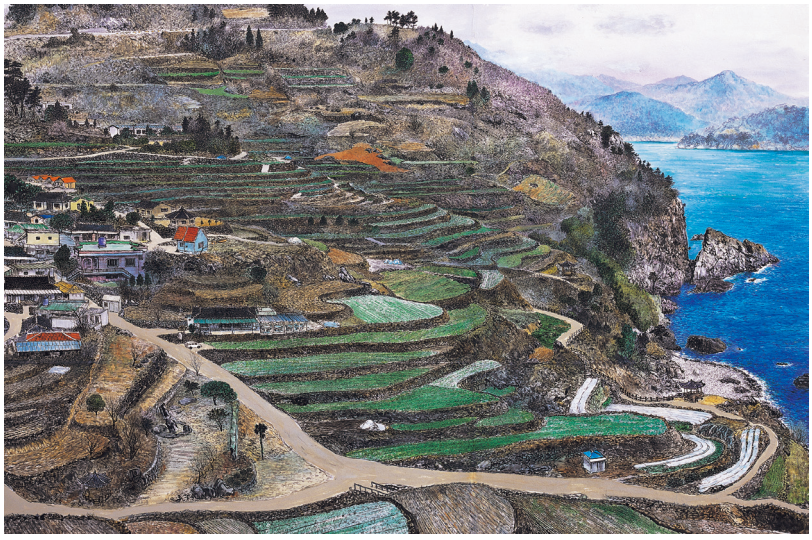
박상복 PARK, SANG BOK

- 경남대학교 사범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경남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개인전 25회 (서울, 부산, 창원, 미국, 일본)
-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1회 입선 8회
- MBC 미술대전 특선 2회, 입선 1회
- 동아 미술제 입선 2회, 초대 및 단체전 400여회
-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 경남미술대전 초대작가

자연에서 비롯된 조형들과 계절들이 나와의 교감 속에 독창적으로 표현되어져 현대 한국화로 해석되어진 작품들이다.
산과 바다 그리고 나무와 꽃들은 늘 내 곁에서 내 마음의 친구가 되어 유혹을 한다. 나는 그 유혹들에 말없이 현장을 누비며 하얀 화선지위에 화필로 그들을 아름답게 담으려 했었고, 그 가치는 또 다른 예술적 언어가 되어 전시장과 내 화실에 빛나고 있다.







남해 다랭이마을의 봄

2011
장지에 수묵채색
333(w) × 218(h)cm



양산 통도사의 설경

2011
장지에 수묵채색
333(w) × 218(h)cm



함양 상림의 만추

2011
장지에 수묵채색
488(w) × 198(h)cm

이태호 LEE, TAE HO

-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 단국대 대학원 회화학과 졸업
- 개인전 3회(서울, 창원, 마산), 기획전, 단체전 다수
- 진해미협 회원

1999년 첫 개인전부터 “비”를 주제로 한지에 수묵으로 주변의 인물들을 표현하고 있다.
누구나 비오는날의 추억이 있을 것이다. 때론 단비같은 즐거운 기억과 슬픔의 무게가 더해서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을지도.....
나는 그런 이들의 우산속 모습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유추하여 표현한다. 그러기에 보는 이(관람자)들도 저마다의 추억으로 해석하며 추억하길 소망한다.







우중행

2021
수묵담채
50호 변형



코로나-19

2020
한지에 수묵, 혼합재료
30호



우중행

2019
한지에 수묵, 혼합재료
60호

정순옥 JEONG, SOON OK

- 개인전 9회(서울, 부산, 창원, 마산)
- Art Fair-서울아트 쇼, 경남아트페어, 부산 Coaf전
- KPAM 대한민국미술제, 뉴욕, 파리Art Fair전
- 단체전 및 그룹전 150여회
- 한국미협 마산지부 회원
- 경남 전업작가 회원
- 경남 여성작가 회원
- 영토회 회원
- 남우회 회원
- 창동예술촌 입주작가

열정을 노래하고, 삶의 고단함을 춤추며,
기대선 어깨마다 술잔을 기울인다.
오래된 선술집 이미 스쳐 지나간 모습들,
마주할 얼굴들이 오늘도 붓을 든다.
나고 자란 내 고향 '마산'
찢어진 가슴을 기워서라도 일어나
우아한 날개로 비상하는 '무학산'
온갖 고통을 말없이 받아 내어 준
합포만의 설움을 안고…
큰 한숨 들이쉬고 하얀 닻을 올리며
내 그림과 함께 여정에 오른다.







기억의 저편

2016
oil on canvas
227.3(w) × 162.1(h)cm



새벽수다

2017
oil on canvas
116.7(w) × 80.3(h)cm



空(공)

2020
oil on canvas
116.7(w) × 80.3(h)cm

2022창원조각비엔날레

Section 3

사립미술관(레지던스)과 갤러리

금강미술관
대산미술관
마산현대미술관
삼진미술관
갤러리 리좀
맛산갤러리
상상갤러리
연아트 오브 갤러리
창동갤러리

2022년 창원조각비엔날레의 〈특별전 2-사립미술관(레지던스)과 갤러리〉 프롤로그는 〈특별전 2-사립미술관(레지던스)과 갤러리〉전을 미리 살펴보기 위한 전시이다. 〈특별전 2- 사립미술관(레지던스)과 갤러리〉는 창원시의 갤러리와 사립미술관, 레지던스의 운영과 역사를 통해 창원 미술문화의 생태계를 2022년 창원조각비엔날레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창원시의 갤러리와 사립미술관, 레지던스는 창원의 예술가들은 물론 국내외 예술가들이 창원의 미술 문화와 교류할 수 있는 주요한 플랫폼이자 창원 미술문화의 생태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이다.

〈특별전 2-사립미술관(레지던스)과 갤러리〉 프롤로그를 통해 소개되는 창원시의 갤러리와 사립미술관은 작가들의 전시만으로 운영하는 전시공간들이다. 창원시 갤러리와 사립미술관 생태계의 특성은 갤러리나 미술관, 레지던스 만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곳이 드물고 갤러리와 미술관을 운영하는 곳, 그리고 미술관과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곳, 그리고 세 개 모두를 운영하는 곳으로 구분이 된다.

이번 〈특별전 2-사립미술관(레지던스)과 갤러리〉의 프롤로그는 창원시의 갤러리와 사립미술관, 그리고 레지던스 등 창원미술문화의 생태계를 맵을 통해 약간이나마 알아보는 전시라고 할 수 있다. 〈특별전 2-사립미술관(레지던스)과 갤러리〉전은 성산아트홀이 아닌 각각의 갤러리와 사립미술관, 레지던스 전시공간에서 열리기에 각각의 공간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 고유한 창원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특별전 2-사립미술관(레지던스)과 갤러리〉 프롤로그에 소개되는 갤러리와 미술관은 9곳이며, 갤러리나 미술관과 함께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특별전 2-사립미술관(레지던스)과 갤러리〉 프롤로그에서 레지던스 만을 운영하는 곳은 제외하였다. 창원시의 사립 레지던시들은 오픈 스튜디오와 함께 본 전시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특별전 2-사립미술관(레지던스)과 갤러리〉 프롤로그에 소개될 9곳의 갤러리와 사립미술관은 다음과 같다.

금강미술관
대산미술관
마산현대미술관
삼진미술관
갤러리 리좀
맛산갤러리
상상갤러리
연아트 오브 갤러리
창동갤러리

금강미술관

경남 최초의 기업미술관, 금강미술관

대표 우 영 준
개관 2016 금강미술관(마산 창동), 2021 금강미술관 재개관(마산 진동 이전)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 618 3층
규모 1~3전시실 총 면적 1,557㎡
운영 미술품 소개/기획/전시/교육 학술 아트뱅크 운영 등
연혁

2021~ 진동 이전 개관 기념 「우영준 콜렉션 - 중국 도자기 · 우표 · 화폐展」, 「우영준 콜렉션 - 비기닝 진동」 진행, 「한국의 병풍 삼절展」 「우영준 콜렉션Ⅲ - 행운을 부르는 풍수예술展 : 소품 하나 호운(好運) 하나」 전시 중

2016~2020 6월, 「중국 명품 도자기 특별전」, 「우영준 콜렉션전」 등 대관전, 초대전, 기획전 순회전 개최

미술관 소개

(주)한국야나세 우영준 회장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문화에 대한 열정으로 설립한 미술관인 금강미술관은 2,000여 점의 근 · 현대 미술작품과 1,500여 점의 중국 도자기를 소장하고 있다. 마산의 도심 창동에서 개관했던 금강미술관은 우영준 회장의 고향인 마산 진동으로 2021년 5월 위치를 옮겨 금강미술관을 재개관했다.

마산은 오랜 세월 문화와 예술의 중심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생활로, 수많은 예술가들이 정착한 문화예술의 역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강미술관은 이러한 마산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이어가고, 도시 재생의 활력소이자 마산의 문화예술 부활을 위하여 자체 기획전, 외부 전시 유치, 대관 전시를 비롯해 교육 학술 아트뱅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무제
1980
캔버스에 유채
72.5(w) × 90.5(h)cm

1917년 경남 마산 출신 한국 현대미술 1세대 서양화가, 한의사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림은 1936년 조선미술원에서 서양화 화가 박광진에게 유화를 배우다가 이듬해 동경제국 미술학교 서양학과에서 수학하였다. 이림 화백은 마산 중 · 고등학교에서 미술 교사를 지내며 혁토사, 흑마회 등의 그룹에 참가하여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한국적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 그림은 1980년 작으로 1970년 이후에 주로 그려진 대표적인 추상작품 중 하나이며 서울 생활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기다란 목의 사슴 형태에 추상적 분위기로 표출해낸 작품이다.

이 림 (1917~1983)

- 경상남도 마산 출생, 서양화가
- 일본 제국미술학교 졸, 일본 천단화학교 졸
-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
- 국전 심사위원 역임
- 1965 국전 제14회 특선(문교부장관상 수상)
- 경상남도미술대전 서양화분과위원회 위원장

대산미술관

경남의 제1종 등록 사립미술관, 대산미술관

대표 김 철 수
개관 1999
주소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유등로369번길 14-8
규모 1~3전시실(427㎡), 본관 사랑방 갤러리(75㎡), 야외조각공원(2560㎡) 등
운영 현대미술 조사, 연구 및 미술작품 수집, 보존, 연구, 전시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술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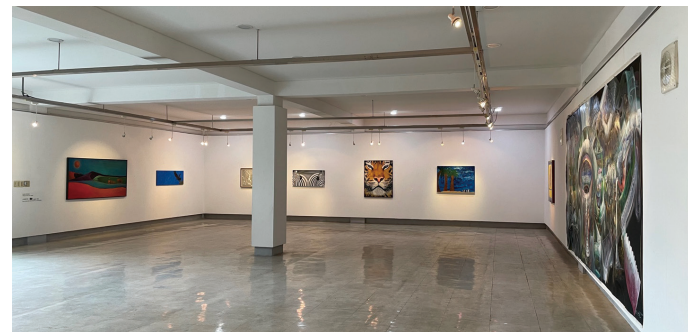
연혁

23년간 147회, 3,000여명 이상의 특별 기획전 진행
홈페이지 조회수 10,740,000건 등
2011~2021 낙동강 다원예술제 10회 개최
1999~2021 섬유미술 100人展, 50人展, 30人展 진행
2015 국제환경미술제 개최

미술관 소개

1999년 1월 창원시 대산면 낙동강변 유등마을에 문을 연 대산미술관은 섬유미술과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대산미술관은 국내외 역량 있는 작가들의 초대 기획전을 비롯하여 국제 환경미술제 및 낙동강 다원예술제, 섬유 미술전 등을 개최하여 예술을 매개로 삶의 여유를 찾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대산미술관은 지난 22년간 138회의 자체 기획전 개최 및 총 3,500여 명의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 참여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35회가량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특별히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의 교육적 기능을 확산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산시리즈

1986
캐시밀론 섬유염색, 철망에 부착
90(w) × 90(d) × 200(h)cm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보았던 초가집 처마의 고추 꾸러미들이 함의하고 있는 우리의 원초 의식에 주목하면서 자연물이 갖고 있는 원색이나 적과 흑의 대비에서 한국적인 색동의 이미지의 원천을 음미하였다. 그는 이것을 〈다산〉을 위한 주술로, 이를테면 남아선호나 힘, 기복과 소원성취, 나아가서는 선악에 관한 신앙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였다. 10만여 개에 이르는 원색의 고추를 면과 캐시밀론 솜에다 염색해서 만든 후 스테인리스 철망으로 성한 원기둥의 프레임워크에다 부착하였다.

김 철 수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섬유미술 전공
- 창원 대산미술관 관장
- 경상남도 박물관협의회 회장
-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부회장
- 개인전 5회 단체전 300여회
- 창원 문성대학 교수역임
- 창원대학교 겸임교수

마산현대미술관

문화적 도시 재생 공간, 마산현대미술관

대표 김 창 수
개관 2004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팔의사로 361 마산현대미술관
규모 1~3전시실: 660㎡, 야외조각공원 8,200㎡ 총 면적 14,527 ㎡
운영 연간 6회 이상 기획 전시, 레지던스프로그램, 음악회 워크숍 등의 행사 개최
체험 교육프로그램

연혁

2020 이존립 초대전, 50인의 아트마켓 등 기획전 5회 개회
2019 강종열 초대전 등 기획전 11개최. 화랑미술제 등 아트페어 4회 참가
마산 아트센터에서 마산 현대미술관으로 명칭 변경
2018 이갑열 초대전 등 기획전 4회 개최
아트부산 등 아트페어 4회 참가
2016 자연의 현상 22인의 신작전 등 기획전 5회 개최
아트페어 4회 참가
2015 이미영 초대전 등 기획전 5회 개최
KIAF 등 아트페어 4회 참가
2012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미술관 소개

마산현대미술관은 문을 닫은 학교를 리모델링한 새로운 재생 개념의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자연과 함께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이다. 기획 전시, 아트페어 참여를 비롯해 레지던시 프로그램,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등 마산현대미술관은 지역의 문화 인프라 확충과 미술문화의 활성화,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예술 향유의 공간 제공에 힘쓰고 있다.













자연으로부터

2021
acrylic on canvas
90.9(w) × 65.1(h)cm

공 태 연

- 이탈리아 피렌체 국립 미술대학 졸업(석사)
- 개인전 42회
  (피렌체, 로마, 파엔차, 페루자, 프랑스, 서울, 부산, 창원, 남해)
- 2021 새로운 모색 23인의 신작전(마산 현대미술관)
- 2017 경남 작가 특별전(김해문화의 전당)

공태연 작가의 작품은 자연으로부터 온 존재들을 숨겨두고 있다. 그가 숨겨둔 존재들은 시선의 각도에 따라 동물이거나, 꽃이거나, 기하학적인 무늬이기도 하다. 이들은 강렬한 터치와 두꺼운 질감으로 서로 뒤엉켜 우리들의 이야기를 자연의 흐름에 녹여낸다.

삼진미술관

지역의 문화를 잇는 공간, 삼진미술관

대표 김 경 미
개관 2001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추곡1길13
규모 1전시실 : 159 ㎡, 2전시실 : 61 ㎡, 3전시실 : 178 ㎡
4전시실 : 66㎡, 5전시실 : 73㎡
운영 미술작품 소개, 기획, 전시/레지던시 및 문화학교 등 문화예술진흥사업 운영
연혁

2021 H • C • Hproject-문신 콜라보전
오픈유토피아-아트월샾 & 비평매칭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매주 토요일 인근 아동 대상 수업 진행)
레지던스 아티스트 로컬 투어
3·15의거 61주년 기념사진전 및 한국화 우순근작가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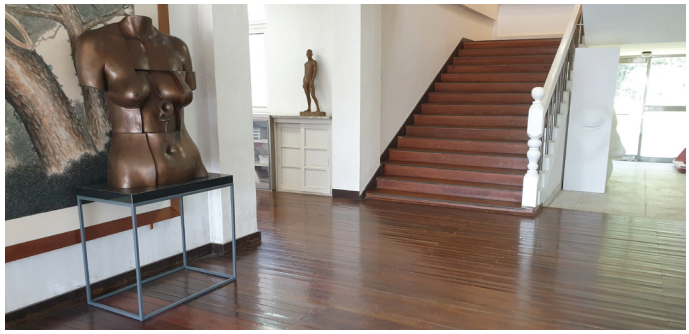
2020 삼진미술관 개관 기념전
2020 삼진미술관 레지던스 최종전
공연 연주 단체 & 레지던스 콜라보
레지던스 아트 워크숍
지역주민 교류 예술 공유 및 체험과 작가와의 만남

미술관 소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위치한 삼진미술관은 옛 상북 초등학교를 활용, 2001년에 우리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조성된 미술관으로서 문화예술의 계승 보전과 지역의 미술문화에 기여하는 작가들의 초대전 및 일반 대관 전시로 현대미술의 발전에 전력하는 미술관이다.
삼진미술관은 마산 합포구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현재 1층의 2개 전시장에는 임형준 조각가의 작품이 상설 전시 중이며 2층의 3개의 대형 전시실에는 레지던스 작가들과 문신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콜라보 하는 기획전과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아이들의 수업 결과 작품전이 전시 중이며 다양한 미술체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하는 미술실도 오픈 중이다. 넓은 운동장과 아름다운 꽃들이 사철 피고 지는 정원과 옛 학교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향수를 일깨우는 따뜻한 문화 공간이 되고 있는 미술관이다.











빛의정원-2107

2021
acrylic on canvas
160(w) × 90(h)cm

우리에게는 늘 그리운 이상향이 있다.
그런 나 자신이 잠시나마 마음을 놓고 힐링하는 순간을 포착한다. 작품의 주제는 빛의 정원. 자연이 단순화된 원색의 소우주(小宇宙). 명도를 높여 빛나는 화면을 추구하는 세상은 우리가 늘 꿈꾸는 어두움이나 슬픔, 괴로움이 없는 이상향. 그 속에서 표현된 자연의 모습들은 우리 삶의 '이니스프리' 같은 것이다.
자연을 모티브로 하고 형상을 가져오지만 사실화의 명암법이 아닌 평면적으로 도식화 되거나 혹은 우화 된 표현을 좋아한다.

김 경 미

- 프랑스 파리 8대학 대학원 조형예술과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 개인전 16회
- 국내외 그룹 전, 기획전 및 초대전 500여 회 참가
- 맛산갤러리 아트디렉트, 삼진미술관 관장

갤러리 리좀

로컬과 글로벌을 잇는 실험공간, 갤러리 리좀

대표 하 효 선
개관 2015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 14길 24, 3층
규모 총 면적 99㎡
운영 미술품 소개/기획/전시/레지던스
연혁

2020 기획 전시 재불화가 한홍수 초대전 '풍경'
재불화가 홍일화 초대전 '숲'
데이비드 B. 장 초대전 'Systemic Force'
2019 국내 및 국제 레지던스 입주작가 소개전 '르쎙크 Lecinq'
입주작가 결과전 '간격 La Distance Ⅰ', '간격 La Distance Ⅱ'
경남국제아트페어 GIAF, 광주국제아트페어, 경남융복합협업축제 등 아트페어 참여
2018 리좀 소장 전시회, 국내 및 국제 레지던스 입주작가 소개전
중간발표전 개최
2017 기획전시 최수환 '함께, 혼자', 노경호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찬우 '개똥, 술똥 버리지 마세요'
유창환 '미술살이 1-어머니, 2-변명, 3-장난'
2016 에스빠스리좀 개관 기념전 : 한홍수 '세상의 기원'
2014 경남국제아트페어 GIAF

미술관 소개

'갤러리 리좀'은 창동예술촌 지역에 위치하며 전시 기획, 국제예술인 레지던스 운영, 그리고 현대 예술의 융합, 대안, 로컬과 글로벌을 잇는 실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 문화예술 기반의 도심재생사업을 실현하고 예술의 로컬-글로벌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갤러리 리좀'은 2015년 개관 이후 꾸준히 기획 전시와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지역과 해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조명하고, 그들을 지역과 세계에 소개해왔다. 2021년까지 '갤러리 리좀'은 약 70명의 해외 작가, 130여 명의 국내 작가를 국내와 해외에 소개했다.








임시풍경 Ephemera landscape 1007

2019
oil on canvas
92(w) × 73(h)cm

Entre Chien et loup(개와 늑대 사이에서)라는 프랑스 표현처럼 새벽과 황혼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는 이미지들이 혼돈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작가는 파리의 수직적인 건물들이 흐릿해지는 이 시간대에 붓을 들어 자신이 지향하는 자연의 수평선들을 채색하며 자연 속의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흐름을 반복되는 붓 터치로 포착하고, 사물과 바탕 선을 흐릿하게 만들고, 주관적으로 선정한 다양한 색채로 뒤덮음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파리 풍경'을 창조하고 있다.

홍 일 화

- 2003 프랑스파리국립예술학교 석사
- 2019 〈Elle GOT〉 인터와이어드 스튜디오스, 서울, 한국
- 2020 〈Landscape Ephemeral〉 갤러리 마리, 서울, 한국
- 1998~ 한국과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
- 한국미래 환경협회 홍보대사

맛산갤러리

마산만_예술인을 품다, 맛산갤러리

대표 한 철 수
개관 2019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순환로 109 (B1)
규모 제1전시실 : 30평, 총 면적 99.1㎡, 제2전시실 : 35평 총면적 115㎡
운영 미술품 소개/기획/전시
연혁

2021 창작회 초대전
삼진미술관 레지던스작가 5인 초대전
삼진레지던스작가 & 창동입주작가 교류전초대
경남원로작가회 초대전
현장을 찾는 경남작가회전
서양 화가 다수 개인전
한국 화가 다수 개인전
조각가 다수 개인전

2020 경남예술나눔작가 협회 초대전
삼진미술관 레지던스작가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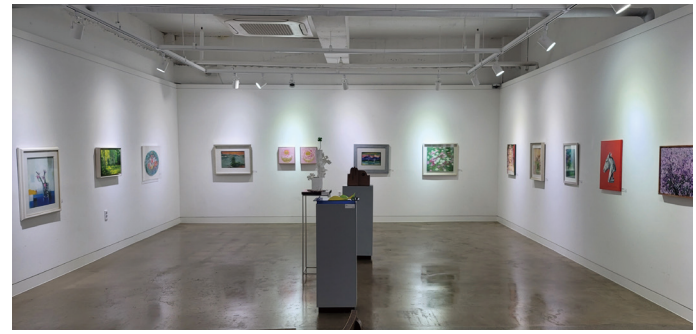
미술관 소개

'맛산갤러리'는 마산만이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가포 바다 끝자리 명소에 자리 잡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 한철수 전 회장의 예술을 향한 큰 사랑으로 시내버스 정비소 겸 사무실이었으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장소에 브라운 핸즈라는 카페가 들어서고, 이어 바다가 보이는 앞 건물 입구는 맛산갤러리로 부활되었다.
한철수 회장과 뜻을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 지난 3년간 장소를 무상으로 내어주는 초대전만을 이어가는 맛산갤러리는 개인소유 갤러리로서는 보기 드물게 시민과 예술가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아트디렉터 또한 예술가로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열정적 작업을 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판매도 하며 시민 감상자들과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긍정적 휴식공간이자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자연의 파동(wave of nature)

2021
한지에 수묵채색
10호 × 9pcs

민 병 권

-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졸업(석사)
- 단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동양화 전공 졸업(박사)
- 개인전 17회 및 부스개인전 6회 및 단체전 다수
- 서울시립미술관 young artist 선정 및 전시지원 수혜
- 충남미술대전 대상
-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3회 外 수상 다수
- 대한민국미술대전, 충남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3·15미술대전 外 다수의 심사위원 역임
- 경남대학교 미술교육과 부교수
- 한국미술협회 회원
- 기초조형학회 이사

동양회화에서 중요시되어 왔던 자연의 다양한 물상의 형상을 비가시적인 계절감으로서의 추상적 표현을 통하여 새로운 조형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자연이 갖는 기운생동의 형상 추구를 통한 파동으로서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선과 점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의 전통적 조형관의 현대적 접목을 꾀하였다.

상상갤러리

창동 문화의 공간을 이어가다, 상상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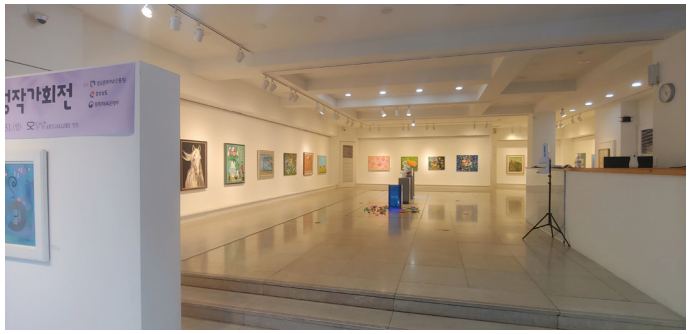
대표 김 원 호
개관 2016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 79-1(중성동 79-1)
규모 지하1층, 1층, 2층, 총 면적 2560㎡
운영 미술품 소개/기획/전시
연혁

2021 경남미교 지회전
5월의 작은 선물전
경남 원로작가 7인 전
경남 여성작가회 단체전, 창원예술 학교 단체전
남우회 그룹전, 중작파 그룹전
상상 갤러리 1주년 기념전, 부마항쟁 기념전
박정순 개인전, 하성태 개인전, 김도해 개인전
박미숙 개인전, 전창완 개인전,
김미옥 개인전, 김영희 개인전, 황영하 개인전
한여름 밤의 꿈 기획전, 김상문 소의해 기획전
장지길 초대전, 박승흠 초대전, 우징 초대전, 양석대 초대전
제1회 창원아트페어, 대동제, 도시지역 문화센터 등 다수 행사 개회

미술관 소개

상상갤러리는 창동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마산의 지역적 상징성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다. 창동에 위치한 금강제화 건물의 공간에 문을 연 〈상상갤러리〉는 층별 약 65평의 여유 전시 공간 등을 활용해 개관 당시부터 지역 미술인들의 전시를 시작으로, 젊은 미술인들부터 중견 작가들까지 지역 미술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상상갤러리는 한국조형예술원의 지리산 아트팜 캠퍼스의 협약 등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예술 작가들의 전시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마산 창동에서 지역과 예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의식과 무의식

2020
acrylic on canvas
91(w) × 72(h)cm

마음 깊숙이 숨겨진 무의식들이 하나, 둘, 내 의식 속으로 치솟아 오른다.
기쁨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누구나 현재를 살아가면서 삶 속에는 즐거움도 아픔도 모든 희노애락을 바다 위에 배(종이배)를 띄워 본다.
우리의 삶도 바다 위에 놓인 종이배로 의식과 무의식을 표현했다.

안 옥 희

- 경남대학 미술교육학과 졸업(동대학 교육학 박사수료)
- 바람흔적미술관 초대전, 맛산갤러리 초대 개인전
- 2018~2021 두토전 인사동 한국 미술관/라메르 갤러리
- 만만전시-호매미술관 전시. 온라인전시-2021
- 2019~ 재미그룹전 창단(서울, 경남 다수단체전. 드로잉 작업실)
- 여성작가 회원
- 한얼 작가 회원
- 한국미협. 마산미협 정회원

연아트 오브 갤러리

창원에 현대미술을 더하다, 연아트 오브 갤러리

대표 남 소 연
개관 2011
주소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시티세븐 43층(스카이라운지)
규모 1전시실 : 총 면적 325㎡, 2전시실 : 426㎡
운영 미술품 소개/기획/전시
연혁

2021 아트 부산, 무그룹전기획(서울 인사아트프라자)
기획초대 곽기수, 이종승 개인전
2020 (고)류시원 특별전, 무그룹전기획(서울 세종문화회관)
기획초대 캐서린겔링스전, 야마다치사또전, 현대미술2인전, 이미향전
기획초대 김형수전, 신용일전, 강종렬전, 박은수전, 하상우전, 오진환전
무그룹전기획(중국북경현대미술관)
2018 경남국제아트페어, 공감의 미감적 풍경전, 현대미술7인전
무그룹전기획(마산 3·15아트센터)
2017 경남국제아트페어, 현대미술 6인 전
무그룹전기획(미국 뉴욕 K&P 갤러리)
2016 현대미술 6인전, 무그룹전기획(독일 베를린 The Ballery 갤러리)
중·한 교류전

미술관 소개

시티세븐 43층 라운지에 문을 연 연아트 오브 갤러리는 계속적인 연구와 작업으로 뛰어난 작품성을 가진 현대미술을 지향하는 작가들을 국내와 해외에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해외 우수 갤러리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아트 부산, 경남 아트페어 등에 참여하며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특별 초대전, 개인전 등 기획 전시를 통해 국내외 미술 애호가 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겨울蓮歌
2019
oil on canvas
182(w) × 73(h)cm

나는 내 기억 속에 담긴 풍경의 이미지들을 주로 표현한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형상들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보고 내면(內面)에서 우러나는 감흥(感興)들을 재해석하여 표현한다.
『겨울蓮歌』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황량한 들판에서 생명력을 다하여 말라비틀어진 연(蓮)과 갈대의 줄기, 잎들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 굴곡진 우리 인간의 삶과 역경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생명력은 다하였지만 곧게 뻗은 줄기에서의 강인함과 말라 비틀어 구부러진 줄기에서의 유연함을 다소 절제되고 힘이 있는 선들로 화면을 구성하였으며, 먹색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흑백의 대비 효과와 은은하게 우러나오는 밑 바탕색을 배경으로 크고 작은 점, 선, 면, 형, 색 등의 조형적인 원리와 요소들이 어우러진 생명력 있는 사유(思惟)의 공간, 『겨울 蓮歌』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김 형 수

- 개인전 11회(서울, 진주, 고성, 함안, 창원, 마산, 오사카)
- 광주비엔날레 특별전(광주 중외공원)
- 부산 국제아트페어 특별전, 아트 부산(부산 BEXCO)
- 한국 정예작가 초대전(서울 시립미술관)
- 예술의 전당 『가을 예술 장터』 부스 초대전(한가람 디자인미술관)

창동갤러리

마산 예술의 부활을 꿈꾸다, 창동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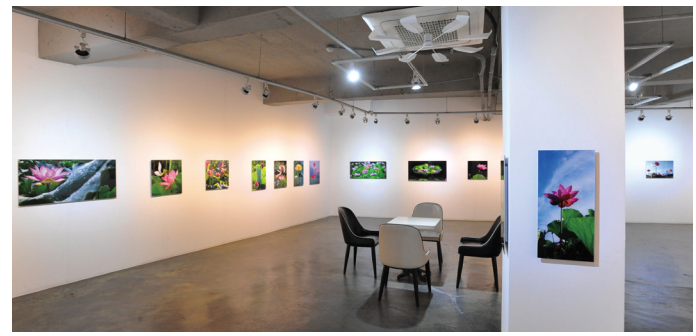
대표 라 상 호
개관 2012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서6길 6-41 FRIENDS
규모 1,002㎡
운영 미술품 소개/기획/전시
연혁

2021 박숙자 사진전 개최
2020 이정희 개인전 '겹-기억의 순환'
배달래 개인전 '삶이 꽃이 되는 순간'
2019 최지환 조각전 '영원의 노스텔지어' 등

미술관 소개

'창동갤러리'는 2012년 창동 부활을 위한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창동예술촌 조성과 함께 개관했다. 개관 이래 초대전 및 대관 전시 등 다양한 전시를 진행해왔고, 원도심에 자리하는 특성상 관람객의 접근성이 편해, 많은 관람객들이 '창동갤러리'를 찾았다. 또한 창동예술촌 골목 곳곳 작가들의 작업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미술인들의 교류의 장이자 관람객과의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









무제

2015
oil on canvas
41(w) × 32(h)cm

故 권 영 호

권영호(權永鎬)[1936~2012]는 경주에서 태어나 포항 구룡포 등지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포항 수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라벌 예술대학 연극 영화과에 입학했으나 곧바로 미술과로 전과해 2년 과정을 마쳤으며, 그 뒤 영남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1961년부터 경북의 중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1976년 경남 대학교 사범대학으로 부임해 2001년까지 26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경남 미술 대전과 부산 미술 대전, 울산 미술 대전 등 각종 공모전의 심사 위원을 맡으며 지역 미술의 발전에 힘썼다.
1960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개인전 21회, 국전 및 경남 도전 특선 4회, 입선 8회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특히 창원과의 인연은 1976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1995년까지 경남 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리고 마산시 예술위원, 경상남도정 자문위원, 경남 문화 예술 진흥 위원, 마산시 건축 위원, 경상남도 문화상 심사위원, 광주 무등 미술 대전, 목우회, 창원 미술 대전, 신라 미술 대전, 가야 미술 대전, 부산미술 대전, 울산 미술 대전, 개천 미술 대전, 전남 미술 대전, 정수 미술 대전, 경남 미술 대전 심사 위원, 경북 중등 교육 미술 협회장, 한국 미협 마산 지부장, 목우회 경남 지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지역 미술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프롤로그展

2021.11.05-11.21
창원성산아트홀 제4~6전시실

발 행 인 임웅균 | (재)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발 행 처 (재)창원문화재단
발 행 일 2021. 11.
주 최 (재)창원문화재단
주 관 (재)창원문화재단
총괄부서 창원조각비엔날레부
총괄운영 이차균 | 부장
총괄기획 손지영 | 차장, 이태훈 | 수석큐레이터
전시지원 김랑금 | 지방행정주사
전시홍보 박한라 | 대리
코디네이터 양혜주, 김동영
도록제작 애드플러스

© (재)창원문화재단, 2021

이 도록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 작가와 창원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